

사무총장 후보

기호 2번 김종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후보 김종국선교사

1. 자기소개

저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성품이나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저는 언젠가부터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국가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꿈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영혼의 건축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 라고 부르시며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함이 저를 1983년 선교에 첫 발을 딛게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저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제 사역의 중심에는 늘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신학교 강의, 연합 집회, 교회 개척, 교단 및 신학교 설립까지 제가 참여한 모든 사역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자 구령의 열정이 기초했고, 주님께서 이 동기를 받으시고, 은혜로 열매를 주셨습니다.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려고 했을 때 비로서 사역의 열매들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선임 선교사로서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KPM 본부장과 KWMF 공동회장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협력과 격려와 은사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일은 제 사역에서 즐겁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가족으로는 저보다 지혜롭고, 말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아내 최춘영 선교사와 2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중 큰 아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두 자녀는 미혼입니다. 자녀들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저는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2. 출마하게 된 이유

저는 선교지에서 좌충우돌하며 선교를 몸으로 배운 현장 선교사입니다. 5년전 본국의 요청으로 교단선교부(KPM) 본부장직을 맡게 되면서 KWMA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책위원, 전략분과위원장으로 섬기면서 한국 교계와 국제 선교계에서 KWMA의 중요성을 발견하며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 선교에서 발견된 지혜들이 KWMA를 통해서 정리되고 연결될 때, 다양한 선교지와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복음의 부요함을 흘러 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렇듯 현장 중심의 KWMA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KWMA 회원 간의 하나된 유기적 연결과 이를 위한 KWMA의 건강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출마하며 저는 현장과 교수와 교단 선교부 본부장 등 지난 날의 경험들이 '이 때를 위해 준비시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3. KWMA가 한국교회와 선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KWMA는 지역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연합체입니다. 다른 말로, 이는 한국 선교계 뿐 아니라 교계의 '마당' 역할입니다. '마당'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으로 나서지 않고, 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당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KWMA는 선교사,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 지역교회 등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여 동역하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KWMA는 선교계의 '나팔수' 역할입니다. 전쟁터의 척후병과 같이 당면한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한국 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성을 알리고, 교회가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 KWMA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 KWMA 회원단체와 직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KWMA에 속해 있는 회원단체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체가 선교를 접근하는 관점과 필요는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KWMA는 각 단체의 강점은 더욱 살리도록 격려하되, 각 단체들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은 KWMA가 지혜를 모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비전을 나누며, 지속적인 양질의 행정력을 가진 우수한 직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정된 직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KWMA의 방향과 다른 선교정책과 전략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연합 사역의 본질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 혹은 불충분한 대화에서 온다는 것을 사역 가운데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와 대화로, KWMA를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향과 다르거나 전체 선교계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바른 원칙과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병행하겠습니다.

6.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선교 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혀 다른 선교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보다는, 그 전부터 해결되었어야 할 다양한 숙제들을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오히려 변화의 '골든 타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갔던 선교는, 비즈니스나 교육 등 공공의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붕괴와 난민상황은, 국제적인 협력과 비기독교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변화 모두 선교가 분명히 평신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지 교회 리더십을 이양하고 동반자(Partner) 또는 참여하는(Participant) 선교의

모습으로 가야할 필요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의 다문화 상황은 노령인구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교회들의 선교와 문화에 대한 필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변화 모두 선교가 지역교회 중심으로 가야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KWMA 는 미래의 선교가 공공의 장에서 평신도와 지역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선교적 방향으로 교계가 함께 움직이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고 성찰하며 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신임 사무총장이 된다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하나, KWMA 의 거버넌스에 개선을 만들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나누어지는 장이 필요합니다. KWMA 는 현장과 교회가 연결되는 건강한 생태계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에 KWMA 의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저는 현 거버넌스 구조를 보다 유기적이며, 개방적인 구조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의 현장 노하우가 전달되고,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들이 KWMA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단 지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더욱 개발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이미 비대면 소통과 플랫폼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보다 확장하여 세계 교회와 선교계 리더들의 성찰과 한국 선교계에서의 현장 경험이 만나는 지성 플랫폼을 체계화하고 이를 교계 전체가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KWMA 방향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겠습니다. Target 2030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을 함께 함으로서, 앞으로의 준비와 최선의 실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은 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고도성장기로 상정하여 파송의 극대화, 선교국제리더십, 동반선교를 목표로 세웠으나, 급변하는 주변 상황은 이 일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넷째, 한국 선교 운동의 풀뿌리 자원이 동력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래의 선교는 평신도 자원의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자원들의 활용과 동원을 위해서 선교계가 함께 의논하고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문화권과 국내 모두, 지역 교회는 선교의 주체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KWMA는 교회들이 더이상 선교의 후원자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차세대 선교 동원을 넘어 선교 동행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의 선교적 변화는 평신도,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회원 단체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구조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8. 추가하고 싶은 말

선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 특성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도 초창기부터 GCOWE, 로잔 대회와 같은 세계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대표하는 KWMA 역시 국내 여느 연합체와는 차별화되어 교단, 교파, 진영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와 도전에 맞서야 하는 이 때, KWMA가 이러한 연합과 일치의 영적 유산을 통해 선교적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지켜 나감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남은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 내는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교 리더십들이 하나되어 함께 미래를 열어 가십시오.

-끝-